

Essay

환상의 세계

박 명 옥

〈수필가, 사진가·본회 회원〉



“미 국 몬타나주에 목사인 아버지와 전형적인 가정주부인 어머니, 두 아들이 평화롭게 살았다..

두 아들은 낚시를 예술로 생각하는 아버지를 따라 몬타나 강가에서 낚시를 배우며 어린 시절을 보낸다. 판이한 성격의 형제는 각기 다른 길을 가는데 형은 큰 도시로 유학을 가서 문학교수이며 작가가 되고, 동생은 몬타나를 떠나고 싶지 않아 고향의 작은 신문사 기자가 된다.

형은 학교 졸업 후, 교수가 되기 전에 고향에 돌아오고 어린시절 낚시를 하던 강가에 세 부자가 다시 선다.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물위에 빠알간 낚시줄을 이리저리 돌리다가 강 저편에 하얀 포말을 일으키며 내리 꽃히는 장면……

태양을 등에 지고 낚시를 하는 형제들의 하얗게 빛나는 머리카락과 팔과 다리에 무수하게 돌아난 황금빛 솜털들, 석양녘에 붉게 물드는 하늘을 따라 철길을 달리는 자동차의 실루엣.

세월이 흘러 노작가가 된 형이 어릴적 놀던 그 강가에 다시 서서 낚시를 하며 옛날을 회상하는 ‘흐르는 강물처럼’은 영상처리가 뛰어난 작품이다. 이렇게 화면 전체가 아름다운 영화를 보면 무조건 카메

라를 메고 그곳으로 달려가고 싶어진다.

사진을 단순하게 취미생활로만 여겼던 내가 야외촬영이 잦아지면서 자연의 신비로움에 반해서 자연과 같이 호흡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로 자연과 친숙해졌다.

자연 속에는 항상 아름답고 생동감 넘치는 드라마가 숨쉬고 있다.

작은 곤충과 초라한 들꽃.

이름 모를 형형색색의 꽃들.

씩어가는 나무등걸과 그위에 피어나는 버섯들.

장엄하게 솟아 오르는 태양.

파랗게 이끼 낀 작은 돌멩이.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나를 환상의 세계로 한없이 깊게 끌어들인다.

작은 직사각형의 파인더안에는 오로지 나의 신비로운 세계만이 존재할 뿐이다. 나는 사진 수법상의 감각과 기교 보다는 모든 피사체의 아름답고 따뜻한 숨결을 파인더를 통해서 담아 내려고 애쓴다.

사진을 함으로써 나의 생활도 풍요롭고 활기 있어졌다. 정적인 생활에서 동적인 생활로 바뀌면서 수시로 여행을 하게 되었다. 겨울의 용평은 최초의 야외촬영지였다. 눈이 오는 진부령은 평화로움 그 자체였다.

그 후로 담양의 죽물시장과 불붙는 듯한 가을의 오대산.

비무장 지대의 두루미와 설화.

안개 자욱한 김포.

비가 무섭게 내리는 영종도.

아름다운 설원의 러시아까지 한달에 한두 번씩 여행을 하게 되었다. 여행을 함으로써 일상에서의 탈출이 자연스레 이루어지는 것도 사진의 매력중 하나이다.

사진은 순간의 예술이다.



똑같은 장소를 두번 세번 가도 매번 사진에는 다르게 나타난다.

그날의 기후조건과 시간대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진다. 그러므로 똑같은 사진이란 있을 수가 없다. 자기가 원하는 순간을 놓치면 영원히 다시 오지 않는다. 순간을 포착했을 때의 '찰칵' 하는 셔터소리와 손가락의 쾌감은 무어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짜릿하다. 그런 짜릿함에 끊임없이 셔터를 눌러대는지도 모른다. 사진은 끈기와 인내심도 요구된다. 내가 원하는 피사체가 될때까지 무조건 파인더를 들여다 보며 기다려야 한다.

이렇게 해서 찍은 사진이 작년에 '후지 창작 사진 공모전'에 특선의 영예를 안겨주었다.

어린이들이 옷을 똑같이 입고 스케이트 타는 모습이 너무 예쁘고 귀여워서 두시간 동안 내가 원하는 피사체가 될 때까지 계속 찍었다.

사람들이 너무 많고 빠르게 움직였기 때문에 필름 두 롤을 소비했다. 나의 작품세계를 묵묵히 외조해 주던 남편과 두 딸이 그 회사 광고사진으로 내 작품이 신문과 잡지에 실린 것을 보고는 얼마나 기뻐했는지.....

지금도 내방 문에는 신문에서 스크랩한 그 사진이 붙어있다.

유난히 기계를 무서워 하던 탓에 카메라에 필름도 넣지도 못했던 내가 이제야 사진에 대하여 조금 알 것 같다. 처음에는 사진을 잘 찍어야겠다는 욕심이 앞섰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는 욕심보다는 사물을 관조하고 사진 찍는 자체를 즐거움으로 여기려고 한다.

난 그저 아마추어 사진가로서 봄·여름·가을·겨울을 담고, 흙냄새, 풀냄새, 산촌의 구수한 인심과 갯가의 비릿함을 나만의 느낌으로 영상에 담으려고 노력할 것이다. ♪